

행복한 소통의 시작, 현대건설 이야기

인류의 역사를 품고 미래로 흐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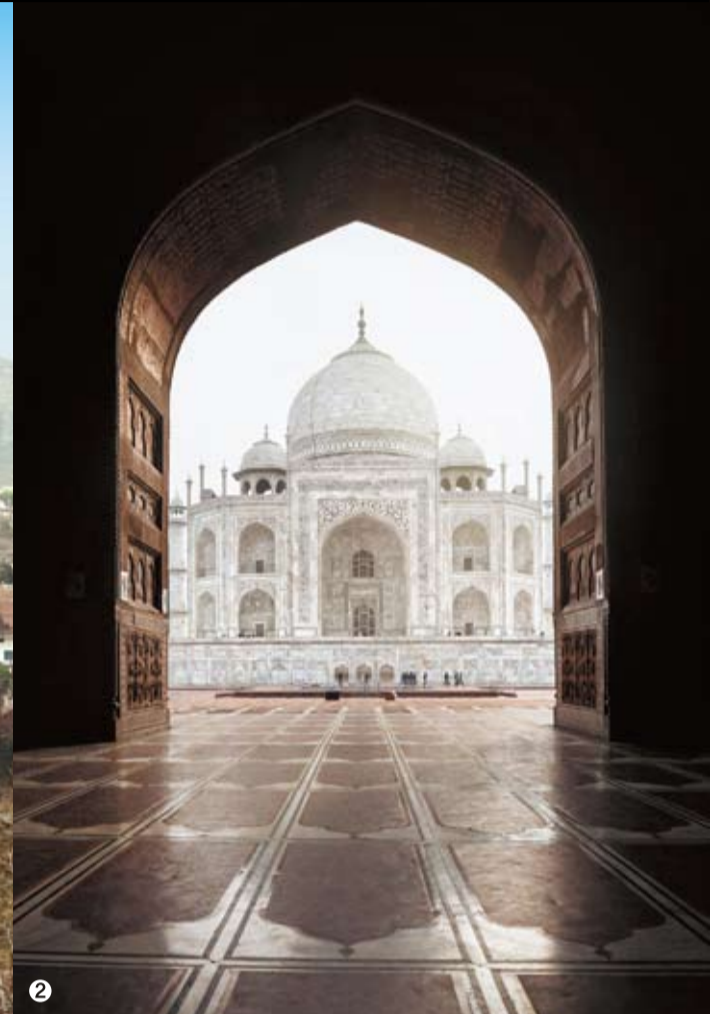


Photo News

인도는 인류의 어머니와 같은 나라다. 인더스강은 문명을 잉태시켰고, '0'의 발견은 '셈'을 선사했으며, 다양한 종교와 철학은 정신까지 풍요롭게 했다. 하지만 인도의 무한한 잠재력은 과거보다 미래에 있다. 12억 인구가 이뤄내고 있는 고속성장은 그 한계를 가능하게 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대건설은 1986년 나바셰바 항만공사를 시작으로 교량, 발전소, 산업시설 등 10여 건의 공사를 수행하며 인도 발전을 견인해 왔다. 날이 치열해지는 인도 시장에서의 역할 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4, 5, 11면>

① 차투르부즈 사원 ② 타지마할 ③ श्री 미낙쉬 사원의 모습 (사진=송성훈 외)

현대건설, 8월 릴레이 분양으로 전국 달군다

8월 한 달 전주·대구·당진 등 6개 지역, 총 6424세대 분양

힐스테이트의 분양 열기가 올 여름 폭염보다 뜨겁다.

현대건설은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일반분양한 '힐스테이트 효자동'을 시작으로 8월 한 달간 총 6개 현장, 6424세대를 연이어 분양한다.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주택시장을 가을 성수기 전에 선점하겠다는 각오에서다. 분양 지역도 다양하다. 수도권인 평택과 안산을 비롯해 전북 전주시, 대구시 황금동, 충청권인

세종시와 당진시 등 전국 요지마다 탁월한 입지 선정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앞세운 대단지 아파트로 지역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현대건설의 이런 전략은 분양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힐스테이트 효자동'이 1순위 청약에서 전 세대 마감한 데 이어 지난 19일 청약을 시작한 '힐스테이트 평택'과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최고 경쟁률 11.08대 1과 6.47대 1을 각각 기록하는 등 여름

비수기를 무색하게 하는 선전을 보이고 있다. '힐스테이트 평택'과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역시 순위 내 전 평형 마감에 성공해 1000세대급 대규모 분양에도 불구하고 분양 호조를 이어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미래가치가 큰 개발 호재 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대단지 위주의 분양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을 두루 얻은 것 같다"며 "향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알짜 지역에 최첨단 유틸리티 시스템과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 힐스테이트가 연이어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분양시장 흐름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21일 충남 당진시 수청동에 1617세대의 '힐스테이트 당진 2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데 이어, 오는 28일에는 대구시 최고의 명문학군을 자랑하는 수성구의 '힐스테이트 황금동'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행정타운과 인접한 '힐스테이트 세종 2차'를 동시에 분양할 예정이다.

Craze for Hillstate sweeps the country

Presales of Hillstate gain steam this summer. Starting with Hillstate Hyoja-dong located in Jeonju-sion August 7, Jeollabuk-do, Hyundai E&C begins selling of a total of 6,424 units of six apartment complexes in August. Korea's primary builder aims to gain the upper hand over the fall peak in the housing market which is on the rebound after the summer vacation season ended. The builder is embarking on preselling Hillstate in various areas such as capital areas of Pyeongtaek and Ansan, Jeonju in Jeollabuk-do, Hwanggeum-dong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Sejong-si and Dangjin-si in Chungcheong region. Large scale complexes of the premium apartment brand, excellently located in major cities of the country, are winning over customers' heart.

The outfit's winning strategy led to successful sales. All units of Hillstate Hyoja-dong offered in the first round of subscription were sold out. On August 19, the first day of the presales, the competition rates for Hillstate Pyeongtaek and Ansan Metro Town Prugio Hillstate were 11.08 to 1 and 6.47 to 1, respectively, which seems quite successful even though summer is usually off season in the market. All types of units of Hillstate Pyeongtaek and Ansan Metro Town Prugio Hillstate in the second round of subscription were sold out as well. The results are considered remarkable given that the presales were carried out in a large scale.

8월 힐스테이트 분양 현장

단지명	M/H 오픈	위치	규모
힐스테이트 효자동	8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지하 3층-지상 42층, 2개 동 302세대 (일반 33세대)
힐스테이트 평택	8월 14일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지하 2층-지상 28층, 33개 동 2807세대 (1차분 분양 822세대)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8월 14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지하 4층-지상 47층, 10개 동 (아파트 1600세대/오피스텔 440실)
힐스테이트 당진 2차	8월 21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지하 3층-지상 27층, 17개 동 1617세대
힐스테이트 황금동	8월 28일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지하 3층-지상 36층, 8개 동 782세대 (일반 281세대)
힐스테이트 세종 2차	8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 동 1631세대

NEWS

- 하반기 국내외 잇따른 수주 - 목표 달성 속도 낸다
- 싱가포르 남북 전력구 NS3 현장 Safety Award 수상
- 카타르 하마드 메디컬 시티 현장 4000만 시간 무재해 달성

그룹사 소식

현대자동차그룹, 전 그룹사 임금피크제 시행

현대자동차그룹이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그룹사별로 각기 다른 현재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시행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정년 연장에 대한 인건비 추가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청년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년을 앞둔 종업원들을 위해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자기계발 및 노후 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정년퇴직 이후 안정적인 삶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금피크제 시행과 청년고용 확대는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재 확보를 통해 회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젊은 인재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美 ENR 선정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26위 기록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4일 미국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발표한 ‘세계 255대 설계회사(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에서 지난해보다 7계단 상승한 26위를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7년 76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9년 만에 두 배 이상 순위를 끌어올렸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 우수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제치고 아시아 업체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평가받게 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는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으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 대형 플랜트 EPC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수익성 위주의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선별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부서 소식

전력사업본부, 상반기 경영설명회 및 사업목표 달성 결의대회 개최

전력사업본부에서 지난 30일 본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최재찬 전력사업본부장과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전력사업본부 상반기 경영설명회 및 사업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했다. 이번 행사는 본부장과 직급 대표자 간 소통 우수직원에게 수여하는 C(Collaboration)-man 시상상을 포함해 본부 중점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며 임직원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사업본부 관계자는 “전 임직원이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매진해 올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시설 현장,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

주한 미군기지 이전 시설 현장이 지난 30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2015년 상반기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 현장은 근로자의 퇴직공제 부담을 철저히 납부함으로써 퇴직공제 제도의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2013년에 착공한 이 현장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일대에 연면적 14만 8951㎡, 지상 1층~9층 규모로 주한미군기지 간부 숙소 10개 동과 다목적 운동장을 건립하는 공사다. 2016년 1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75%다.



하반기 국내외 잇따른 수주... 목표 달성 속도 낸다

쿠웨이트 해상유류출하시설 공사,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최근 국내외 토목공사로 연이어 수주하며 올해 목표 수주액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현대건설·SK 건설·사이렘(Saipem)이 참여하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JV)가 지난달 29일 쿠웨이트 정유회사(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가 발주한 15억 달러(약 1조7502억원) 규모의 ‘아주르 신규 정유 공장’ 패키지 5번 해상유류출하시설 공사를 공동 수주했다. 이 정유 공장의 원유 하루 생산량은 61만5000 배럴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총 5개의 패키지로 분할 발주된 이번 프로젝트에서 현대건설 JV는 정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석유 제품을 해상으로 출하하는 시설인 해저 파이프라인과 연결 출하부두를 건설한다. 우리 회

사는 이 프로젝트의 주관사(40%)로 SK 건설(30%), 사이렘(30%)과 함께 공사를 수행할 방침이다. 현장은 수도 쿠웨이트 시티에서 남쪽으로 90km 떨어진 쿠웨이트 수·전력개발의 중심지인 아주르(AI-Zour) 지역에 위치하며, 공사 기간은 총 45개월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1977년 쿠웨이트에 첫 진출한 이래 총 58건, 약 54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쿠웨이트 국가기반시설 공사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낭보가 이어졌다. 우리 회사는 지난 6일 경기도북부청이 발주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3공구 공사를 따냈다. 터널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수택동을 잇는 총 연장 2375m의 터널과 정거장 1개소, 환기구 3개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계약액은 1576억원(당사분 791억원).



2004년 7월 준공한 쿠웨이트 AI Ahmadi Oil Pier Project의 석유 출하설비 시설 모습.

Hyundai E&C speeds up to achieve its goals

Our company is inching closer to the goal of orders received this year by obtaining a series of civil engineering projects at home and abroad.

On July 29, a joint venture consisting of Hyundai E&C, SK E&C and Italy's Saipem won the 5th package

of the AI Zour Refinery Project worth 1.5 billion dollars, or about 1.7502 trillion won, commissioned by the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Its oil refining output capacity is 615,000 barrels per day, which will make the refinery the biggest in the world.

The project, divided into five packages in total, is to build a submarine pipeline designed to ship oil products produced in the refinery, and a wharf connected to the pipeline. Our company, which leads the joint venture, will be responsible for 40 percent of the total

amount of the contract, followed by SK E&C (30 percent) and Saipem (30 percent). The construction site is located in the region of AI Zour, a hub of the development of water and power in the country, 90km south of Kuwait City. The construction will take 45 months.

싱가포르 남북 전력구 NS3 현장 Safety Award 수상



카타르 하마드 메디컬 시티 현장 4000만 시간 무재해 달성

카타르 하마드 메디컬 시티 현장이 지난 3일 발주처인 카타르 공공사업청(Ashghal)으로부터 무재해 4000만 시간 달성 인증서를 받았다. 무재해 4000만 시간은 우리 회사가 시공한 역대 건축현장 중 최장 기록에 해당한다. 신상훈 현장소장은 “2016년 4월 준공까지 안전관리에 힘쓰겠다”며 “우리 현장은 카타르가



중동 최대의 의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초기지인 만큼 랜드마크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꿈키움 재능기부 봉사단 제1기 해단식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21일 도곡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교육장학 멘토링 프로그램인 ‘제1기 힐스테이트 꿈키움 재능기부 봉사단’의 해단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 멘토와 대학생 멘토, 청소년 멘티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멘티 서로에게 편지 쓰기, 활동 수료증 전달, 우수 멘토링 팀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힐스테이트 꿈키움 재능기부 봉사단은 우리 회사 임직원과 멘티의 희망 분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멘토로 나서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출범한 제1기 봉사단은 10개월간 청소년들의 학업 향상과 진로 상담 및 희망 직무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청소년 멘티들은 성적 향상은 물론 진로 확정, 자격증 취득 등의 값진 성과를 냈다.



한편 우리 회사는 10월 10개 월간 활동할 제2기 꿈키움 봉사단의 멘토와 멘티를 모집 중이다.

‘2015 현대건설 기술대전’ 접수 마감

우리 회사가 지난 31일 ‘2015 현대건설 기술대전’ 응모작 접수를 마감했다. 지난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번 공모에는 총 211건의 기술·아이디어가 출품돼 역대 최대 접수 기록을 세웠다.

대학 부문은 토목·건축·플랜트·에너지·환경·안전 분야에서 144건, 기업 부문은 신소재·신공법, 건설현장 시공관리 프로세스 개선, 기타 건설산업 분야에서 67건이 접수돼 지난해에 비해 12% 증가했다. 접수된 응모작들은 1·2차 심사 후 다음 달 8월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오는 10월 2일에는 도곡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시상식을 겸한 수상작 발표회가 열릴 예정이다.



2015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우리 회사는 지난 13일 하계 인턴십 수료식을 갖고 2015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우리 회사는 총 33명을 선발해 7월 6일부터 6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리 회사 전 부서에 각각 배치돼 현장 직무실습과 개인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우리 회사가 시공 중인 보령·태안 1공구 현장을 견학하는 한편 서산연수원에서 1박2일간 합숙연수를 통해 그룹과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우리 회사는 2010년부터 건설업 입사를 희망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채용 연계형 인턴제로 진행돼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인턴사원에게는 정규직 입사 특전이 주어진다.

ISSUE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의 최신 뉴스를 (사보신문)에 연재합니다. 경제·건설·문화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뉴스를 통해 생생한 비즈니스 이슈 및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자체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Putting a face on the plastic in your pocket

Aug 10
 Located on the 10th floor of the company's office building, the factory is designed to look like an Industrial Revolution-era workshop.
 The move is one of several shake-ups by Hyundai Card CEO Chung Tae-young, who has also emphasized new designs for marketing cards and worked to create a liberal workplace culture.
 Located in the financial hub of Yeouido-dong, the 1,190-square-meter (12,809-square-foot) factory includes a string of assembly lines with about 40 employees making all different kinds of credit cards.
 "This building used to only be for our offices," said a spokesperson at Hyundai Card. "But when we relocated our factory to Yeouido, the company's executives decided to utilize it as a marketing tool by opening it to our customers.
 Starting Aug. 3, the factory is open to anyone who owns a Hyundai Card, along with three of their guests. A new customer can also receive his or her card at the factory in person,

rather than having it delivered to the home or office.
 "When new card owners receive their cards here, they get a chance to look around the factory and understand how their cards are made," said the spokesperson. "We hope that if we provide this kind of new experi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and customer could become more intimate."
 Designed by renowned architect Choi Wook, the factory was renovated to resemble an Industrial Revolution site with gigantic lamp chimneys, vintage telephones and a loudspeaker that's actually used to make announcements.
 A long, transparent bridge is installed above the assembly lines so that visitors can see the entire process.
 Although there's no entrance fee for cardholders and their companions, the building's security is strict. Prior reservations are required, and visitors must carry a pass issued in the lobby. Photos aren't allowed.
 When asked why the factory is not open to non-members to attract more



customers, a senior PR director said he intended to keep a high standard for the location.
 "This isn't an amusement park, where everyone - even children - can hang out whenever they want," he said.
 "We want people to visit here to be inspired by this factory. We want to show that a factory can be turned into this unique design and run inside

a building in an urban city.
 Between 2013 and 2015, the company launched three libraries around Seoul that specialized in different sectors-the Design Library, Travel Library and Music Library.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s was the first time that a credit card company had launched special spaces for its customers for marketing purposes rather than to make a profit.

주머니 속 신용카드의 새 단장

현대카드가 회원들의 현대카드 공장 방문을 허용하는 등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대카드 본사 10층에 위치한 카드 팩토리는 산업혁명 시대의 작업장과 같은 모습으로 디자인됐다. 카드 팩토리는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대대적 개편 작업 중 하나로, 정 사장은 카드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의 금융 허브 여의도에 위치한 1190㎡ 규모의 카드 팩토리에 약 40여 명의 현대카드 직원이 각기 다른 종류의 신용카드 작업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 건물은 현대카드의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됐지만 (공장도) 여의도로 이전하면서 고객들

에게 건물을 개방해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자는 중역들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8월 3일부터 현대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동반 3인까지 카드 팩토리에 입장할 수 있다. 현대카드를 신규로 신청한 고객의 경우,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규카드를 배달받는 대신 카드 팩토리에 직접 방문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규 카드 고객이 카드 팩토리에서 카드를 수령할 경우, 팩토리 내부를 둘러보면서 카드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현대카드는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더욱 돈독한 기업-고객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명 건축가 최욱 소장이 디자인을 담당한 카드 팩토리는 거대한 랩프형

굴뚝, 빈티지 전화기, 실제로 안내방송용으로 사용되는 확성기 등이 설치, 산업혁명 시대 공장을 재현했다. 작업 라인 위에는 투명하고 긴 다리가 있어 방문객들은 전체 공정을 볼 수 있다.
 현대카드 회원과 동반 방문객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지만 카드 팩토리의 보안은 철저히 유지된다. 사전예약은 필수며, 방문 고객은 반드시 로비에서 발급된 패스를 소지해야 한다. 사진 촬영도 금지돼 있다.
 더 많은 고객 유치를 할 수 있음에도 비회원에게 개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현대카드 PR 담당자는 "카드 팩토리의 기준을 높게 가져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는 "카드 팩토리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시간을 때울 수 있는 놀이공원과 같은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대카드는 이곳

을 방문한 사람들이 카드 팩토리를 통해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며 "공장이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심의 빌딩 안에서도 공장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2013~2015년 사이에 현대카드는 디자인 라이브러리, 트래블 라이브러리, 뮤직 라이브러리 등 서울 곳곳에 전문 도서관 세 곳의 문을 열었다.
 신용카드 회사가 수익이 아닌 마케팅을 목적으로 자사 고객을 위해 특별한 공간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Key expressions
 plastic: (비격식) 신용카드
 cardholder: 카드 소지자
 shake-up: (기업, 조직 등의) 대대적인 개혁

'Cleanse juice' craze spreads across the country

Aug 13
 The popularity of so-called cleanse juice isn't letting up, especially in the summer when many are looking for a quick way to flatten their stomachs before heading to the beach.
 Cold-pressed juice, better known in Korea as "cleanse juice," has become a popular phenomenon in Korea, and juice bars are diversifying their promotions and products along with opening more stores and establishing delivery systems in order to reach more customers.
 Juice made from fruit and vegetable extractions can be good for upset



stomachs, since they are easy to digest.
 "Cold-pressed juice doesn't have much fiber, and that can be good for people with sensitive stomachs," said Lee Kyung-hee, culinary professor at Kyung Hee University.

This is in contrast to smoothies made from blended fruits and vegetables, which are high in fiber.
 Many people looking to change their dietary habits or reset their body have been visiting local juice bars. And since the most popular option is cold-pressed

juice, Koreans have started to identify this product as cleanse juice.
 The juice has become a popular health supplement. Some refrain from eating and only drink juice for days, while others just add it to their regular diet.
 However, one issue that still needs to be tackled is how to deliver the juice in a fresh and sanitary way. Since this type of juice isn't pasteurized after pressing at a local retailer, most juice bars can only target customers who live or work nearby. Companies may offer delivery, but it can't be nationwide.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Q Describe the picture.

SAMPLE ANSWER

I'm glad to describe this wonderful picture.
 In the picture, there is a boy who is reading a book seriously. The boy is wearing a glasses and have more books in front of his feet.
 I can see it's autumn because of his clothes.
 Behind the boy, I can see brown grass and trees.
 The leaves of grass turned light brown. It makes me feel autumn too.
 That's all I found in this picture. Thank you.

Picture Comparison 유형



Q Compare the two pictures.

SAMPLE ANSWER

There are two pictures which shows almost different things.
 On the left one, there is a book which open on a wooden desk. It has hard white cover. The book is little bit thick so I can guess it might be a novel or a book about history. The paper of it has light brown color. It seems get old and turned it's color.
 On the right one, there is an i-pad on the light brown desk with some stuff in kitchen. It has white color and rectangle shape. It shows a picture of food and some words, so I can guess it is a recipe of some food.
 Nowadays, people use more i-pad than paper books. But I like paper books more. It looks more real than the monitor of i-pad.

자료 제공 : SLI 교육원(02-541-7219)

MOVIE

'Veteran' No. 1 in Korean box office

Aug 11: Following strong performances by local blockbuster "Assassination" and Hollywood action flick "Mission: Impossible - Rogue Nation" for the past two weeks, "Veteran" was the new chart-topper for the second weekend of August.
 Directed by action auteur Ryo Seung-wan, the action comedy debuted with 1.9 million admissions at 1,064 screens nationwide, according to the Korean Film Council on Monday.
 Featuring a slew of stars, including Hwang Jung-min, Oh Dal-su and Yoo Hae-jin, the film follows a confrontation between a hardheaded police officer (Hwang) and a haughty spoiled millionaire (Yoo Ah-in).



REPORT

2000년대 현대건설을 대표하는 국내의 역작을 소개합니다. 현대건설의 역사를 바로 알고 '글로벌 톱 건설사'로의 미래 비전을 꿈꿔 주시기 바랍니다.

New H+ Story 인도 야무나 교량 (2000.10~2004.7)

인도 수도인 뉴델리에서 600km 떨어진 동북부 알라하바드에 위치한 야무나 교량. 우리 회사는 당시 어려운 공사 여건 속에서도 첨단 기술력과 고도의 정밀시공을 적용해 2004년 7월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야무나 교량 전경.

현장 직원들이 야무나 교량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도에 현대건설의 교량 기술력을 드높이다

콘크리트 사장교의 한 획을 그다

인도 야무나 교량은 알라하바드(Allahabad)와 나이니(Naini)를 가로지르는 야무나 강에 총연장 5.4km, 왕복 4차로 규모의 사장교와 도로로 지어졌다. 2000년 10월에 착공해 2004년 7월 완공한 이 교량은 당시 인도에서 건설된 최장의 콘크리트 사장교였다.

우리 회사는 4개의 모듈로 구성된 전체 공사 중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모듈 1 사장교를 맡았고, 현지 시공사인 힌두스탄(Hindustan) 사가 모듈 2, 3, 4인 진입고가교와 진입도로를 담당했다.

야무나 교량은 2000년대 당시 국내 대부분의 사장교가 강사장교 혹은 합성형 사장교였던 데 반해 주탑 및 상관이 모두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사장교로 건설돼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사장교 구조의 특성상 케이블의 비선형성 외에도 콘크리트의 외부 온도·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하중에 의한 크리프(creep·재료에 힘이 가해졌을 때 변형되는 현상) 등을 고려해야 하는 난도가 높은 공사였다.

야무나 교량은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다양한 공법 변경과 설계 변경을 일궈냈다. 당초 교량 Deck의 최초 설계는 제작장에서 미리 제작하는 프리캐스트(Precast) 공법이었지만 현장에서 이 공법을 적용할 경우 제작장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Heavy Lifting 작업을 필요로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다. 우리 회사는 발주처와의 협의 끝에 현장에서 타설하는 공법으로 변경했고, 그 결과 철근 물량 감소, 시공성 향상은 물론 공기 단

축, 원가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야무나 교량은 이동식 작업차(Form Traveller)를 이용해 교각 중심으로부터 상부 구조물(Segment)을 하나씩 차례대로 제작해 나가는 공법인 FCM(Free Cantilevering Method)으로 시공됐다. 이 공법은 당시 국내에 유사 구조 및 공법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이었다. 야무나 프로젝트는 FCM 공법 적용으로 구조적인 견고함을 높이고 좌우 균형을 맞춰 교량의 수려함을 더할 수 있었다.

오지 현장의 어려움을 딛고 인도의 대표 프로젝트로 ...

야무나 교량 현장의 초기 개설 당시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당초 계획은

2000년 9월 초 모든 장비를 콜카타 항에 집결시켜 현장까지 1600km의 갠지스 강 수로를 통해 실어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운송 도중 예상외의 낮은 수심으로 인해 배가 강바닥에 닿아 이동이 쉽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예인선들이 운송을 포기하는 바람에 현지인들이 다음해 수심이 깊어지면 운송을 재개하자고 말했다. 이에 직원들은 장비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강의 모래를 퍼내는 등 수많은 방법과 아이디어를 총동원했다. 그 결과 육상장비와 자재는 중간에 하역해 육상 운송을 하고, 해상 장비는 소형 선박을 이용해 현장에 무사히 도착시킬 수 있었다. 우리 회사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공기가 지연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교통시설은 물론 문화시설도 전무한 오지에 위치한 야무나 교량 현장에서 직원들은 53도까지 오르는 타는 듯한 무더위와 싸워야 했다. 또한 문순 기간에 평소 수위보다 10m 이상 불어나는 야무나 강 위에서의 작업은 위험천만했다. 이러한 열악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은 서로 격려하며 어려운 공정을 수행했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야무나 교량의 성공적인 준공은 과거 10여 년 동안 국내 기업의 사장교 해외 공사실적에 전무한 상태에서 향후 해외 장대교량 공사 참여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이 현장은 현대건설의 이름을 빛낸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interview 그해그시절

“우리의 단결력은 최고였다”

인도의 오지에 위치한 현장에서 당시 최장 콘크리트 사장교를 무사히 준공할 수 있었던 건 탁월한 전문성과 단결력으로 똘똘 현장 직원들 덕분이었다. 수많은 난관을 서로에 대한 신뢰로 극복한 직원들과의 미니 인터뷰.

Q. 언제 야무나 교량 현장에서 근무하셨나요.

서재훈(이하 서): 저는 2002년 3월부터 야무나 교량 현장에 부임해 콘크리트로 시공된 주탑 공사를 비롯한 사장교 공사를 담당했습니다. 사장교 케이블의 가설, 이동식 작업차(Form Traveller)를 이용한 콘크리트 Deck 가설 등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죠.

이정환(이하 이): 저는 서 부장님보다 조금 이른 2001년 7월 투입돼 2004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장교는 케이블이 교량을 지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교량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케이블 길이나 장력 조정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 현장에서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사장교 케이블의 장력 조정과 Deck의 선형 관리를 전담했습니다.

Q. 낯선 나라 인도에 적응하기가 어렵진 않았어요?

서: 어려운 점이 많았죠(웃음).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삼각이라고 하는 힌두교의 성지가 있었어요. 힌두교도들이 일생에 한 번은 꼭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곳이지요. 종교 행사 기간에는 그 곳에서 목욕하려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멀리서 보면 장관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옆에서 물소들이 걸

어다니는 물에서 목욕하고 그 물을 마시기까지 하니 문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웃음). 당시엔 문화적인 차이로 다소 충격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재밌는 추억으로 남았네요. 야무나 교량 현장은 수도인 뉴델리에서 기차를 타고 8시간이나 가야 하는 오지에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모뎀으로 통신하던 때라 한 달에 한 번 비디오테이프가 본사에서 20개씩 공수되어서 직원들이 차례로 비디오테이프를 돌려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Q.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서: 저는 우리 회사 재직 기간 대부분을 교량 공사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교량은 공간적으로 두 지역을 연결하지만, 정서적으로도 두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연결해주는 소통의 구조물입니다. 교량이 완공되고 난 후 걸어서 다리를 건널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공사 마지막에 잠시 가족을 현장으로 초청한 일이 있었는데, 가족에게 완성된 교량을 보여주니 참 뿌듯하더라고요. 2년 반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미안함을 어느 정도 해소한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 현장 서재훈 부장, 이정환 부장

Q. 두 분이 현재 같은 현장에서 근무 중이시잖아요. 야무나 교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지금 하고 계신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서: 이 부장과는 매우 절친 인연인 것 같아요(웃음). 야무나 현장에서 함께 일한 것이 벌써 13년 전이네요. 당시에는 우리 두 사람 모두 팀원으로서 맡은 일반 열심히 하면 됐는데, 지금은 모두 팀장의 위치에서 팀의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팀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과거에 함께 고생했던 기억들이 이런 견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유효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는 현재 시공 중인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가 케이블 교량이어서 그 당시 야무나 교량을

하며 경험했던 케이블 설치 경험과 중량물 관리 경험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서 부장님과 주말이면 맥주 한잔을 기울이곤 하는데, 예전 추억을 곱씹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웃음). 야무나 현장에서 제가 담당했던 선형관리 업무가 서 부장님이 계시기에 공사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케이블을 가설할 때는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다 보니 공사 담당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동고동락했던 기억들이 이번 현장에서도 계속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Q.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서: 준공 후 모든 직원이 복귀했을 때 한동안은 본사 근처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식사도 하고 추억을 안주 삼아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요즘은 뜸한 상태입니다. 다들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이: 이번 현장에서 서 부장님과 다시 일하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오지 현장에서 여건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단결력으로 똘똘 뭉쳐 우린 결국 해냈잖아요. 야무나 현장 OB 여러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MARKET

인도 경제가 고속질주 중이다. 인도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7.5%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은 인도의 2030년 GDP를 6조6000억 달러로 전망하며 인도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신삼섭 실장(해외건설협회 지역1실)



건설칼럼 15 인도



정상회담으로 수주 기대UP 세계 8대 경제대국, 인도

인도는 인구 12억6000만 명 규모의 세계 최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인도인들은 180개에 이르는 서로 다른 언어와 540여 개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인도가 비교적 안정된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나 많은 인도인이 카스트제도를 숙명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도 사회 안정에 한몫했다. 인도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전체 국민의 74%에 달하는 하층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지난 총선에서 간치(Ghanchi; 카스트의 가장 낮은 상인 계급) 출신 난렌드라 모디가 총리에 선출되며 인도의 경제 성장은 물론 하층민의 생활도 향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연평균 7.2%... 고도성장 지속될 것

인도는 연평균 7.2%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세계 8위(2014년 GDP 기준) 경제 대국이다. 세계 2위의 거대 내수시장과 35세 이하 인구 8억 명의 우수한 노동력을 갖고 있어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할 양대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인도에는 외국자본이 몰릴 듯이 몰려오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액은 4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배나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도 올 5월 기준 237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0%나 늘었다.

인도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산업은 제조업이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산업은 세계 자동차 업계의 제2 허브로 불린다. 인도의 2014년 자동차 생산량은 384만 대로 세계 6위. 섬유 수

인프라 건설에 1조 달러 투자 예정... 한·인도 정상회담으로 국내 건설사 수주 기대 up

출은 세계 2위다. IT 분야는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기술력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강국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세계적인 광물 대국으로서 철광석 생산 세계 4위, 보크사이트 및 망간 세계 6위, 석유 매장량 세계 24위다. 식량 자원도 풍부해 콩·우유·차 생산량 세계 1위, 쌀·말·면화 생산량은 세계 2위다. 이처럼 인도 경제는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높은 기술력, 많은 부존자원과 함께 급증하는 외국 투자에 힘입어 상당 기간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1조 달러, 인프라 건설에 투자 예정

인도의 경제 동향을 간단히 알아봤다면, 이제 건설시장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1986년 현대건설이 수주한 나바셰바 항만 공사로 인도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1993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나트와 자크리 수력발전소 공사로 본격 시장 개척에 나선 국내 건설사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202건 공사, 172억 달러를 수주했다. 공종별로는 플랜트 130억 달러, 건축 17억 달러, 토목 18억 달러 등이다. 이는 인도가 세계 최대 건설시장 중 하나임을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수치다.

희망적인 것은 지난 5월 열린 한·인도 정상

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두 정상은 인도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 참여 추진, 100억 달러 금융 패키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인도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2~2017년)' 예산 중 약 1조 달러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정도로 인프라 확충을 경제발전의 열쇠로 보고 있다.

철도 부문에서는 '인도 철도 2020 비전'을 통해 2020년까지 철도 고속화 사업 1270억 달러, 전국 주요 도시 메트로 구축 사업 660억 달러, 화물철도 건설 73억 달러, 철도역사 현대화 사업 180억 달러 등 22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델리~뭄바이 기존 노선의 준고속화 사업 타당성 조사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는 막대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력 부문에서는 4000MW가 넘는 초대형 발전 플랜트(Ultra Mega Power Plant)를 13기 이상 건설할 계획이다. 이외에 나잠 파트남 등 원전 2기 건설에 420억 달러, 에탈린 수력발전소 건설에 50억 달러 등을 투자할 계획. 정유 플랜트 부문도 134억 달러 규모의 자마나गर 정유 공장을 포함한 총 4기의 대형 정유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모디 총리의 핵심 선거 공약인 스마트 신도시 100기 건설 사업은 20개 신도시 후보지가 2015년 내로 발표되고, 남은 80개는 2017년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미 국내외에 잘 알려진 1000억 달러 규모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단지, 물류단지,

철도 및 도시 건설이 추진되는 한편, 40억 달러 규모의 갠지스강 수질 정화사업 추진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진출 시 유의할 점

대규모 프로젝트가 쏟아지고 있는 인도 건설시장에 진출하려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인도는 대규모 공사 추진 시 지역 주민의 토지 수용 반발이 빈번하다. 토지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서는 발주처와 긴밀한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 관련 규제가 많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최근 개혁으로 사업 수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으나 행정 시스템이 낙후돼 있어 정치권 및 공무원과의 협력이 필수다. 이와 관련해 올 5월에 진행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기업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도 총리실 직속의 Korea Plus Center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건설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세 제도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다. 세율이 높으므로 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넷째, 현지 건설사가 대부분 영세하다. 그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 입찰 및 공사 수행 시 적격 협력업체를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경험이 많은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엔지니어의 경우 임금이 높다. 공사 수행 전에 안정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입찰 시 담보보증(복보증) 문제와 유능한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일곱째, 인도는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65%에 달할 정도로 재정이 취약하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전에 금융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인도의 철도, 스마트 시티, 전력시설 등의 건설을 위해 제안한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분석해 활용 방안을 살펴야 할 것이다.

국내 건설사의 인도 진출 SWOT 분석



- 강점**
- 풍부한 시공 경험과 세계적인 기술 수준
 - 품질, 공기, 원가 등 우수한 사업관리 능력

- 약점**
- 인도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 취약
 - 현지 정보 및 지역 전문가 부족
 - 발주처 및 인허가 기관 네트워크 취약
 -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금융 조달 능력 취약

- 기회**
- 세계 4대 건설시장으로 연간 4000억 달러 규모의 풍부한 공사 발주
 - 우리 정부가 제안한 100억 달러 규모 정책금융의 활용 가능성 (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 달러)
 -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한 친기업, 친시장 정부 정책
 - 2030년 세계 3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 가능성
 - 국내 건설사의 기술 및 경험에 우호적

- 위협**
-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유·무상 차관 공세(2014년 각각 향후 5년간 200억 달러 투자 및 3조 5000억 엔 지원 합의)
 - 정부재정 취약으로 PPP 방식이 많아 금융조달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에 장기간 소요
 - 복잡한 인허가 절차

알면 더 보인다, 인도 이모저모!

힌두교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종교의 나라, 인도. 인도 인구 중 80%가 믿고 있는 힌두교는 세계의 종교 중 유일하게 경전이 없고, 특이하게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 대서사시의 문학 작품을 경전으로 삼고 있다. 특정한 창시자도 교주도 없다. 힌두교는 3명의 주신과 3억 3000명이 넘는 하부신들이 존재할 뿐이다. 인도에서 종교에 관해 논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만, 한편으로 종교는 그들의 일상에 매우 깊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힌두교에 대한 순수한 질문은 매우 환영받을 수 있다.

김수로왕의 아내가 인도 공주?
삼국유사에는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왕 아내가 인도 아요디아 출신의 허황옥(인도 이름 슈리라트나) 공주라고 적혀 있다. 허황옥 공주는 큰 눈과 높은 코 등 이국적인 풍모가 뚜렷했다고 전해지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들 10명이 태어났다고 한다. 김해의 김수로왕릉에 가면 공주가 배에 싣고 왔다는 파사석탑을 볼 수 있다.



인도 대문호가 우리 민족에 위로 건넨 사업은?
인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타고르는 1929년 우리 민족에게 '동방의 등불'이라는 예언자적인 시를 헌정했다. 시는 당시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긍지와 감격을 안겨 주었으며 한·인도 간 우호의 상징으로 뿌리내렸다.

TOGETHER

제5회 집수리 로드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14박15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수리 로드에 참여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90명과 전국 6개 현장 직원 100여 명은 재해 위기가 정 169가구를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글=임영현 / 사진=집수리 로드 촬영팀



제5회 집수리 로드

전국 소외계층에 희망 전한 14박15일 대장정

우리 회사가 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집수리 로드가 지난달 17일 충남 공주를 시작으로 전남 진도, 경남 하동, 경북 울진, 충북 단양에 이르는 14박15일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활동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90명과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공사 ▶신한울원자력 1, 2호기 주설비 공사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2공구 노반 건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공구 등 총 6개 현장 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어느 해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이번 여름에 지역 주민을 위한 집수리, 세탁, 영정 사진 촬영,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다.

지상파 TV 방영... 훈훈한 나눔에 관심 집중

이번 집수리 로드는 2011년 시작된 이래 5년째 진행된 만큼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동안 현장 참여형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한 것. 우리 회사는 공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주변의 취약 계층을 보듬으며 지역 주민의 삶까지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로드를 위해 여름휴가를 미룬 직원들이 있었을 정도로 현장과 직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집수리 로드에 대한 인지도도 높

아졌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해 9:1이었던 집수리 로드 경쟁률이 올해에는 10:1을 기록했다. 집수리 로드가 이공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건설사 유인 대학생 집수리 봉사활동이자 재능 기부 활동이기 때문. 게다가 한 번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 동참하는 ‘열혈’ 대학생들도 여럿이다.

수해 취약 지역의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집수리 로드가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가 먼저 나서 방문을 요청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집수리 대상 가구 추천에서부터 봉사자의 문화유산 체험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었고, 6개 지역의 단체장 모두가 직접 봉사자들을 만나 격려했을 만큼 환대를 받았다. 이에 힘입어 올해 169가구의 집수리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KBS와 MBC에서 촬영을 나왔을 정도로 지역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다.

전국 169가구 맞춤형 집수리... 분주했던 현장

집수리 준비는 발대식 한 달 전부터 시작되는데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가구를 직접 찾아가 수해 가구를 선정하는 작업을 필수로 거친다. 이번 집수리 로드의 집수리팀 조장들도 실사 작업을 진행했다. 조장들은 이전 집수리 로드에도 참여해 집수리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대학생들이 맡기 때문에 집

안 구조를 정확하게 실측하는 것은 물론, 물이 새는 곳은 어디인지, 쥐구멍은 많은지, 벽과 천장이 콘크리트 또는 목재로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재와 작업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벽지 선택에서도 가구주의 취향 반영은 필수. 말 그대로 한 가구 한 가구만의 맞춤형 집수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집수리 로드에서 대학생 봉사자들과 현장 직원들은 보통 이들이 걸리는 집수리를 하루 만에 척척 해내는 신공(?)을 발휘했다. 이들은 “그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 온 주민들에게 ‘리브 하우스’를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집중하다 보니 하루 한 곳의 집수리를 끝낼 수 있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미술 전공자들로 구성된 벽화팀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울진에서는 재작년 벽화팀이 작업한 벽화 주변에 새로운 작품을 그려 벽화길이가 이어지기도 했다. 세탁팀은 이동 세탁차량을 설치해 마을 주민을 위해 이불 등을 깨끗이 빨고 건조까지 완료해 가정까지 배달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이와 함께 사진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사진팀은 장수사진을 촬영해 드렸다. 사진팀은 “사진 촬영도, 화장도 오래간만이라는 어른들은 카메라 앞에서 쑥스러워하셨지만 촬영을 끝낼 즈음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해맑은 미소를 지으셔서 무척이나 보람됐다”고 말했다.

산학 멘토링 간담회·현장 견학 산실 폭발적인 반응 얻어

이번 집수리 로드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전공 학생들과 현장 직원들이 참여하는 산학 멘토링 간담회와 우리 회사 현장(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공구) 견학을 처음으로 시행해 봉사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현장 참여를 확대시켜 현장이 지역사회 봉사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집수리 로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현장이 동참해 지역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Mini Interview

뜨거운 여름을 보낸 집수리 로드 참가자들에게 활동 소감을 들어봤다.

“집수리 로드엔 무조건 도전하세요!”



김용현 명지대 기계공학과 4학년

지난해와 올해, 청춘의 시간을 집수리 로드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활동 내내 어른들께 친자식처럼 다가가고 노력했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오디, 옥수수 등을 한 아름 안겨주시기도 하고 집수리 후 헌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어른들이 지금도 생각나네요. 제가 해드린 것보다 얻고 온 게 더 많아요. 집수리 로드엔 무조건 도전하세요!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단양 현장 견학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동현석 홍익대 토목공학과 3학년

201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참여했습니다. 뻥뻥 일정이었지만 어른들의 환한 웃음을 보면 피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집수리 로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현장에서 터널 뚫는 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집수리 로드 참여 전 현대건설이 ‘입사하면 좋을 회사’였다면 이제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건설사’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돼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주변 소외계층엔 도움 줄 수 있어 부듯”



유용준 과장 신한울원자력 1,2호기 주설비공사 현장

대학생들이 숙련공에 준할 정도로 작업에 능숙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날에는 소장님 이하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차매 어른님과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한 게 기억에 남아요. 대소변과 곰팡이 냄새가 심한 가정이었는데, 앞으로 소독 장비를 보완해 철저한 소독에도 신경을 쓴다면 더 나은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주변의 소외계층에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달 14박15일의 일정으로 169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한 제5회 집수리 로드.

COLUMN

생각의 좌표 아무 일도 안 하기는 너무 어려워

방치하거나 간섭하기. 이 두 유형의 어른 밑에서 아이들은 단 한순간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를 하지 못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지
답다. 염천이다. 친구가 더운데 일하지 말고 놀자고 한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덧붙이기까지 한다. 예술은 유희다. 유희하지 않고 예술은 나올 수 없다. 심심함이야말로 창조의 어머니다. 등등. 시중에 회자되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말이 실감나면서 나도 우선 답다는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말까, 하고서 이동한 곳은 거실 소파.
결국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텔레비전을 보는 일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요즘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고된 일을 할 때처럼 숨이 가쁘다. 텔레비전은 언제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 있다. 적어도 세상에는 조용한 텔레비전은 없는 듯 여겨진다. 수다와 과장된 제스처와 끊임없이 남발되는 감탄사와 탄식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은 사실 내게 그다지 쾌적한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더군다나 자동차에서, 식당에서, 공공장소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틀어대지는 텔레비전의 현란함은 기피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살인사건, 불륜, 증오, 갑부림, 욕설이 난무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 고역 같은 일은 이제 보통으로 치러내야 할 일상이 되었다. 함께 둘러앉아 보는 것이 민망해 이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본다. 하여간 언제나 본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뭔가를 들여다보는 일을 멈추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에서 아이들은 단 한순간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를 하지 못한다. 노는 일 또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일이 되었으며, 멍 때리기조차도 '대화'가 되었다.

그리고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어른들도 꽤 힘들었던 모양이다. 스님은 노느니 염불을 하라 하시고, 우리 할머니는 노느니 마늘을 꺾으며, 우리 고모는 툴툴이 뜨개질을 하신다. 어릴 적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학교 끝나면 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는 말을 부모에게 들었다. 그런 엄마의 말이 억압이 되어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다. 잠시 한눈과는 일 또한 노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러니까 화장실이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화장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불알'을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가야 격렬하게든, 차분하게든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아무런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친다면, 현대인의 아무것도 안 하기는 무엇이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 것만 같다. 그리고 보니 이 염천에 나는 답다는 핑계로 아무 것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굴리면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느라 또 에너지를 쓰고 있다. 나는 언제쯤 아무 일도 안 하는 즐거움을 녀살종게 풀어내며 유유자적할 수 있을까. 하물며 격렬씩이나? 그것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이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선옥
소설가



계동 산책 해풍 맞은 보령 자색 고구마의 특별한 변신



카페 보라 삼청본점

아트선재센터를 지나 안국역 사거리로 향하는 울곡로3길, 국대역북이와 아티제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카페 보라 삼청본점'이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개성 있는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다. 글=임영현 / 사진=송성훈

지난 7월 오픈한 '카페 보라 삼청본점'은 건강한 재료로 만든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는 디저트 카페다. 한자 '결음(氷)'과 '붙잡을 라(牽)'를 합쳐 만든 상호는 '고객의 발걸음을 붙잡는 곳'이자 시그니처 메뉴 '보라빙수'를 상징한다. '카페 보라'의 콘셉트는 오리엔탈 디저트 카페다. 전통적인 한(韓)스타일에 모던함을 더했다. 내부에는 대청마루를 연상시키는 좌식 공간이 마련돼 있고, 그곳은 주문제작한 도자기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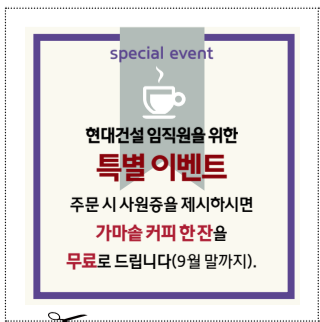
이곳의 빙수는 모두 1인용.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한 레시피로 먹을 수록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곱게 간 얼음 위에 충남 보령의 자색 고구마로 만든 휘레와 렌틸콩, 귀노아 등을 올린 '보라빙수'와 하루 동안 삶은 팔에 유기농 연유를 넣은 '밀크팔빙수'가 가장 인기다.

몸이 호사를 누리는 것 같다.

모든 빙수에는 조청에 버무린 후두강정과 자색 고구마 칩이 사이드 메뉴로 나온다. 달은 모양새가 화려한 꽃 한 송이를 닮았다. 아이스크림은 자색 고구마에 유기농 우유를 더한 '보라아이스크림'과 고소한 '땅콩아이스크림' 두 종류. 여기에 식용 꽃 한 송이를 올려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쏟은 느낌을 준다.

10% 적립 서비스도 시행중이고 '보라떼'(자색 고구마 라떼)와 같은 가을-겨울 메뉴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 사계절 언제든 찾아도 좋을 듯하다.

주소 서울 종로구 울곡로3길 75-3(소격동 149-5)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0시(연중 무휴)
문의 070-8613-5537



HOT CLIP HILLSTATE NOW!

'힐스테이트 평택' 분양 "2807세대 힐스테이트로 평택의 중심이 이동한다"

우리 회사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 12-2번지 일원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평택'을 분양 중이다. '힐스테이트 평택'은 세교지구 내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33개 동, 전용면적 64~101㎡ 총 280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분양분은 64~84㎡ 822분양할 계획이다.

'힐스테이트 평택'은 편리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지하철 1호선 지제역이 가깝고, 특히 2016년 KTX 평택지역이 신설되면 서울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또한 수원을 거쳐 서울까지 이어지는 1번·45번 국도를 이용하기도 쉽다. 특히 고덕산업단지 인근에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세교중, 평택여고가 도보 통학권에 있으며 세교지구 내 초등학교가 신설 예정이다. 이마트 지제역점과 법조타운, 시청, 세무서, 보건소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인근 은실근린공원과 함께 세교지구내 조성될 근린공원 2곳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단지 내 순환산책로까지 마련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두 자녀 학습공간 강화 평면(73㎡ B타입), 범외방환경설계 인증(예정), 현관 안심카메라, 어린이 전용 승차대기 공간 '키즈스테이션' 등 특화 설계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견본주택은 세교동 산 14-4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분양문의 1661-0039

힐스테이트 분양 현황

구분	현장명	총세대	분양 문의
서울/수도권	고덕레이크	3658	02-554-5574
	강서	2603	02-2698-7400
지방	대전	3146	031-731-1400
	안산메트로타운	1600	1800-4767
	푸른지오		
	백련산 4차	963	02-302-7203
	당진	915	1899-0058
	당진2차	1617	1899-0058
	평택	822	1661-0039
	창원갈매 4차	1665	055-282-5005
	해운대 우브	2369	051-742-5116



'힐스테이트 평택' 투시도

PEOPLE

스크린과 브라운관 속에는 늘 그가 있다. 튀지 않는 외모 덕분에 맑은 캐릭터가 더 살아나는, 크고 작은 배역에도 제 몫을 해내는 천성 배우 이승준을 만났다. 글=박현희 / 사진=송성훈



☞ 만나고 싶었습니다 배우 이승준

“작품을 할 때보다 안 할 때 더 잘 지내야 해요”

이승준은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이하 '막영애')> 속 역할을 두고 '미완의 대기'라고 표현했다. 이 말을 그에게 적용하면 '더욱 빛을 발할 천성 배우'라고 풀이해도 좋을 듯하다.

데뷔 20년차 베테랑 배우인 그가 대중에게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2011년 개봉한 영화 <최종병기 활>의 '완한'을 통해서다. 완한은 청나라 정예부대 니루의 대장 유신타(류승룡)의 사촌형제로,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과 강한 카리스마로 주목받은 캐릭터. 그 역시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 중 하나로 <최종병기 활>을 꼽았다. "잊을 수 없는 영화예요. 저를 대중에게 제대로 알리기도 했고, 연기적으로도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이거든요."

대중에게 얼굴을 강하게 각인시킨 작품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이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순신과 전장에서 싸우는 장군 '인위'를 연기한 그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다.

현재 이승준은 지난 10일 첫 방송한 '막영애' 시즌14에 출연 중이다. '막영애'는 30대 노처녀 영애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사랑과 사회생활을 그린 리얼 드라마로, 2007년 4월 시즌1이 방송됐다. 드라마 속에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인소스를 물려받은 후 맡아먹는 철부지 사장이자 영애와 '썸(남녀가 사귀기 전 밀고 당기는 단계)을 일컫는 유행어'를 타는 '승준'으로 분하고 있다. 인터뷰를 한 시점은 시즌14의 첫 방송 바로 다음 날인 11일, 첫 질문은 당연히 '막영애'에 관한 것이었다.

#1 '막영애' 승준, 미완의 대器

Q 어제 '막영애' 시즌 14가 첫 방송을 했어요. 첫 방송은 꼭 챙겨보는 편이에요. 솔직히 시청률을 의식하고 싶지 않는데, 의식하게 돼요. 드라마는 시청률에 따라 대본이 바뀌거든요. 오늘 시청률을 물어봤는데 첫 방송치고는 꽤 잘 나온 편이에요. 시작이 좋은 만큼 이번 시즌도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웃음).

Q 첫 장면부터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지난 시즌들에서는 마냥 밍상 캐릭터였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호감으로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시즌12부터 합류했는데, 그동안은 알리고 철딱서니 없지만 싫어할 수 없는 캐릭터였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조금 철든 승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애와의 러브라인도 좀 더 깊어질 듯하고요.

Q '막영애' 속 영애는 일과 연애, 그리고 결혼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30대 여성을 그리고 있어요. 승준은 어떤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걸까요.

승준은 아버지 덕에 사는 놈이지만, 무척 외로운 친구예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밑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는데 그러지 못해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죠. 주변에 친구도 적고, 연애도 지지부진하고요. 승준이 우리 사회의 누군가를 대변한다면 그건 아마 미완의 대기들 아닐까요? 능력을 펼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저는 승준이 어떤 계기를 만나면 누구 못지않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Q '막영애' 속에서는 사회 속 갑을병정의 애환이 모두 녹아 있어요. 가장 공감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 직접 공감되는

“짧지 않은 무명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연기가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이승준은...

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인 배우 이승준은 1996년 연극 무대로 데뷔한 후 지금까지 영화 <핸드폰> <심장이 뛰다> <최종병기 활> <명량> <카트> 등과 드라마 <나인> <비밀> <미생> <막돼먹은 영애씨>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4와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인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촬영 중이다.



에피소드는 없지만, 영애와의 관계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해요. 연애를 하다 보면 누가 더 좋아하는냐에 따라 감정이 결정되잖아요. 처음에는 영애에게 감춰둔 굴지만 나중에는 을로 변하는... 연애해 본 사람이라면 공감하지 않을까요(웃음)?

Q 2012년 12월 치과의사인 아내와 4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내와의 연애 시절엔 갑과 을 어느 쪽이었나요?

아내는 아마추어 연극을 할 정도로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인을 통해 아내를 소개받았는데, 그 친구가 공연을 보러 올 때마다 저에게만 음료수나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사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백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괜찮은 배우라서 준 거예요(웃음). 그래도 전 연애할 때 갑인 편이었어요. '아니면 말지'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니 확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절대 갑은 아니예요(웃음).

#2 늘 선택받는 직업, 배우

Q 완한, 인위, 승준 등 말은 배역마다 놀랍도록 이미지가 바뀌는 것 같아요. 노하우가 있나요?

일단 그런 역할이 들어와야 해요. 사실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저 열심히 할 뿐이죠. 그 인물에게 맞게 외형도 바뀌어야 하고요.

Q 요즘 개성 있는 외모의 배우들이 많잖아요. 평범한 외모가 고민인 적도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 고민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어요. 일이 없을 때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30대 초중반에는 '소위 바쁜 배우, 잘 나가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엄청나게 고민했었어요. 지금도 저에게 개성 있는 캐릭터를 맡겨주신 감독님들이 고마워요. 사

실 찾아보면 그 캐릭터에 꼭 맞는 외모를 지닌 배우가 많거든요.

Q 무명 시간이 짧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연기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불안해 하면서도 확신이 있었죠. 지금까지 출연한 연극만 해도 거의 100편 가까이 될 거예요. 힘들었지만 작품마다 3~5개월씩 새로운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게 정말 좋았죠.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술 마실 때 꼭 '오늘은 연극 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도 결국 작품 이야기로 빠져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이랄까? 오히려 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개들에게 술은 연어 먹지만 전혀 부럽지가 않죠. 결국 재미가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Q 누군가는 잠깐씩 사이에 대세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승준 씨는 은근하게 달아오르는 느낌이에요. 조바심이 날 것도 같은데?

배우는 선택받는 직업이니까 늘 불안하죠. 잠깐 쉬고 싶어도 그 잠깐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더 잘 해야 한다는 욕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Q 어려울수록 도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던데요.

시간에 쫓기고, 피곤하지만 뭔가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연극 <스피킹 인 텀스>도 했던 거고요. 연극을 할 때는 '아 너무 힘들었다. 당분간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또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고생한 만큼 희열이 느껴지는 작품이 몇 있었어요. 체력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액션 누아르에 도전하고 싶어요. 온몸이 녹초가 되도록 액션 신도 찍어보고 싶고요. 꼭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3 심 없이 일해야죠

Q 실 때는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는 편이에요?

배우는 작품을 할 때보다 안 할 때 더 잘 지내야 해요. 여행을 가든, 책을 보든, 어디에서 재미있게 놀든 일하지 않는 시간을 일하는 시간보다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무너지면 아주 힘들어해요. 작품이 와도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죠. 저는 야구, 여행, 술을 즐기는 편이에요. 특히 편안한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가볍게 한잔 기울이는 걸 좋아하죠.

Q '막영애'에서 "소름끼치게"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최근 소름끼치도록 꼭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야구! 보통 게임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있는데, 틈이 나면 꼭 가는 편이에요. 사회인 야구 7년차인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빠져드는 것 같고요.

Q 포지션이 뭔가요?

사회인 야구에서는 유격수, 투수, 포수를 맡은 사람이 잘하는 건데, 저는 이 세 개 빼고 다 해요(웃음). 프로 야구팀 중에는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해요.

Q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임직원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안국동에 있는 막걸리집에 자주 가는데, 늘 지나치는 건물이 바로 현대건설이에요. 대학교와 인사동 사이에 회사가 있다니,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연극을 마쳤는데요, 근처 대학로에 좋은 연극 공연이 많으니 자주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4가 최근 첫 방송을 했습니다. 매주 월, 화 밤 11시 tvN에서 하니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웃음)!

CULTURE



인도 여행을 꿈꿔본 적이 있는가. 아직도 심각한 빈부 격차와 카스트제도가 뿌리 깊이 얽혀 있는 인도는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나라다. 하지만 한번 그 매력에 빠진다면 인도 여행은 자유 그 이상의 해방감을 선사할 것이다. 글·사진=현경미(『인도, 신화로 말한다』 저자)

신들이 사는 나라, 베일 속에 가려진 인도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무덤 타지마할 Taj Mahal

말이 필요 없는 인도 최고의 관광지 타지마할.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며 22년 동안이나 그 무덤을 지었다는 한 남자의 시공을 초월한 사람이 깃들었기 때문일까? 타지마할은 들어서서 순간 그 웅장함에 넋을 잃고 만다.

무굴제국 4대 황제 '자함기르'의 셋째 아들인 '샤자한'은 왕세자 시절이었던 15살 때 14살인 '뭇타즈 마할'에게 첫눈에 반한다. 엄격한 왕실 법도에 따라 이미 혼처가 정해져 있었지만 '샤자한'은 무려 5년을 기다려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그는 결혼 후에도 전쟁터까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4번째 아이를 낳던 중 왕비는 숨을 거둔다. 왕의 슬픔은 깊고도 또 깊었다. 식음을 전폐하고 비통에 잠기기를 수십 일, 왕비의 유언대로 대리석·벽옥·수정·진주·에메랄드·사파이어 등 값비싼 자재와 장식재들을 아시아 각지에서 들여와 전대미문의 크고 화려한 묘역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2만 명의 인원을 동원했고, 당시의 모든 기술력과 예술을 쏟아부었다. 전설에 의하면 다른 곳에 타지마할같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최고 장인들의 손목을 잘라버렸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다.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길은 2012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획기적으로 시간이 단축됐다. 그전에는 말, 낙타, 코끼리

넓디넓은 인도를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둘러보기엔 무리지만 인도를 대표하는 건축물 '타지마할', 왕족들의 여름휴가지 '우다이푸르', 긴 여행 끝 꿈같은 휴식을 안겨줄 '심라'를 여행하다 보면 인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

가 길을 점령할 때가 많아 5시간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2-3시간이면 충분하다.

타지마할을 제대로 관광하기 위한 한 가지 팁! '노이다'는 우리나라 분당과 비슷한 신도시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인데, '노이다'의 한국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 '아그라' 여행길이 한결 수월하다. 타지마할은 관광객이 많아 제대로 된 구경을 하기 쉽지 않은데, 인근에서 1박을 하고 오전 6시30분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입장하면 비교적 여유롭게 타지마할의 구석구석을 잘 살펴볼 수 있다.

타지마할 구경을 하고 시간이 남았다면 '아그라'에서 1시간30분 정도 떨어진 '파테푸르 시크리(Fatehpur Sikri)'를 가보는 것도 좋다. 이곳은 1570년부터 1585년까지 무굴제국의 수도였던 도시다. 인도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무굴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악바르 대제는 당시 구자라트 지방을 정복한 뒤 붉은 사암을 기본으로 신도시 건설에 착수했는데, 여러 지역의 장인들을 불러모아 도시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 양식의 건물들이 공존하는 점이 이색적이다.

인도인의 신혼여행지 우다이푸르 Udaipur

인도에서 가장 로맨틱한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라자스탄 주에 있는 '우다이푸르'다. 겨울처럼 맑은 피촐라(Pichola) 호숫가에 지어진 이 도시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댐을 건설해 인공호수를 만들고, 산 위에 9km 정도의 성을 쌓았다. 이 아름다운 중심에는 '시티 궁전(City Palace)'과 '호수 궁전(Lake Palace)'이 있다.

'우다이푸르'는 로저 무어가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007 옥토퍼시>가 이곳에서 촬영되고 난 뒤 유명세를 탔다. 특히 호수 안에 신기루처럼 떠 있는 '타지 호수 궁전 호텔(Taj Lake Palace Hotel)'은 많은 사람의 꿈의 여행지이자 인도에서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 이곳은 1746년부터 수백 년 동안 왕족들의 여름 별장이었지만 부침을 겪다가 1971년 타지 그룹이 인수하면서 럭셔리 호텔

로 거듭났다. 가격에 상관없이 하룻밤만이라도 왕이나 공주가 된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곳에서 숙박해 볼 것을 권한다.

'우다이푸르' 관광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피촐라 호수의 수면 높이다. 건기에 방문한다면 볼품없는 풍경에 적잖이 실망할 것이다. 관광 적기는 우기가 막 지난 8월부터 다음 해 봄까지. 호수의 절경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해질 무렵 보트관광이 최고인데, 보트를 타고 붉게 물들어가 는 '시티 궁전'을 바라보면 여행의 낭만은 배로 커진다.

'우다이푸르'는 시내뿐 아니라 인근 관광지 가 많아 최소한 2박3일 정도는 머무르는 것이 좋다. 시내 관광 후 외곽으로 나가고 싶을 때는 '라나푸르(Ranakpur)'로 발걸음을 옮겨 보자. 자동차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이곳은 유명한 자이나교 사원이 있는 곳. 내부로 들어가면 크고 작은 돔으로 이루어진 천장과 화려한 장식의 기둥들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다른 힌두교 사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분위기라 하루를 꼬박 투자해도 방문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낭만적인 도시에서는 무엇을 사면 좋을까. 코끼리상, 차, 스카프 같은 흔한 기념품은 잠시 잊자. 이곳만의 독특한 상품은 무갈제국 시대의 그림이다. 시장에 가면 그림 파는 집이 줄지어 서 있을 정도다. 문제는 가격인데, 가격흥정을 잘 못하면 너무 비싸게 살 수 있다. 시작은 상인이 부르는 가격의 1/3에서 시작하면 된다. 인도인은 흥정 자체를 즐기 기 때문에 기본 한 시간 정도 밀당을 하겠다는 각오로 가격 협상을 해야 한다.

영국 식민지 시절의 여름 수도 심라 Shimla

체감온도 50도를 넘나드는 뉴델리의 극한 더위에 놀랐다면 항상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고산지대로 길을 나서 보자. 40도를 육박하는 인도의 무더위를 온몸으로 겪다가 히말라야 자유인 심라에 도착하면 우리나라 초가를 같은 날씨에 감격해 고생으로 얼룩진 인도 여행의 기억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호수 궁전' 내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심라는 히말라야 산기슭 풍경과 라지(Raj)·1947년 이전 영국의 인도 통치 기간의 빛바랜 비애와 위엄을 감상할 수 있는 환상적인 곳이다. 심라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864년 인도의 여름 수도로 선포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한여름에도 30도를 넘지 않는 날씨 덕분에 지친 영국 관료들에게는 천국이나 마찬가지였다. 뉴델리에서 365km 정도 떨어진 이곳은 구불구불 산길을 끊임없이 달려야 해

장장 10시간이 넘게 걸린다. 대부분의 건물이 유럽식으로 지어져 있고 100m가 넘는 고목이 즐비한 울창한 나무 숲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이국적인 느낌이 다. 특히 1888년에 영국식 르네상스 스타일로 지어진 총독관저를 시작으로 하누만 원숭이 신을 모신 '자쿠 사원'을 관광하거나 수틀레지 강에서의 급류 래프팅, 승마 등 색다른 레저를 즐기다 보면 하루가 더욱 짧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여름에는 트레킹을 비롯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겨울이면 눈이 내려 스케이트와 스키를 탈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인도 영화 <세 일간>이 촬영지로 널리 알려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심라 여행의 포인트는 산꼭대기에 있는 힌두 사원. 사원을 방문해 봐야 심라 여행의 참맛을 알게된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히말라야 산맥은 한마디로 장관 그 자체다. 멀리 아련하게 구름 사이에 히말라야 설산이라도 보이면 그 신비감은 더 깊어진다.



1 선선한 기후를 자랑하는 심라. 산 속에 유럽식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2 '피촐라' 호수 위에 신비롭게 떠 있는 '타지 호수 궁전 호텔'.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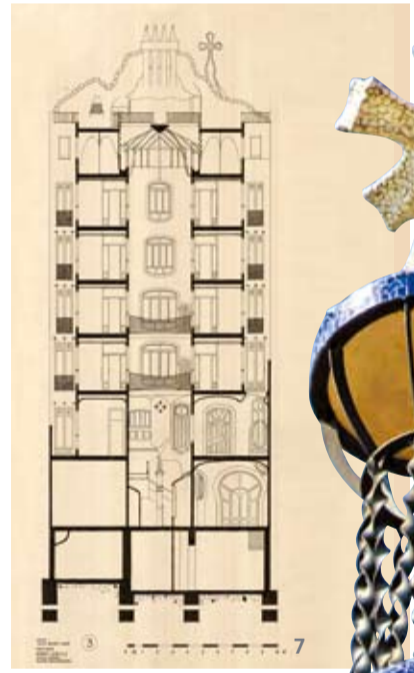
“곡선은 신의 선이고, 직선은 인간의 선이다”라는 말을 남긴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 1852~1926년)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가 오는 11월 1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안토니 가우디展

바르셀로나를 꿈꾸다



- 1 카사 칼벳의 사무실의자
©Càtedra Gaudí.
Photo: Guillem Fernandez-Huerta
- 2 사그라다파밀리아 성당 내부
©Yoon, Joonhwan
- 3 사그라다파밀리아 성당 '영광의 파사드' 첫 번째 계획안
©Càtedra Gaudí
- 4 사그라다파밀리아 성당 외관
©Yoon, Joonhwan
- 5 카사 칼벳의 벤치
©Càtedra Gaudí.
Photo: Isabel Casanova
- 6 카사 바트요
©Yoon, Joonhwan
- 7 카사 바트요 종 단면도
©Càtedra Gaudí.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15.7.31~11.1 | 02-837-6611

예술이 된 건축 · 건축이 된 예술

탁월한 미적 감각으로 세계 건축과 예술, 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연 안토니 가우디. 그의 삶과 작품세계를 망라한 <안토니 가우디>展이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우디의 건축 도면과 원본 스케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7개 건축물에 관한 사료,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가구와 장식물, 멀티미디어, 건축물 모형 등 300여 점이 선보인다. 특히 미발표 작품들과 개인적인 기록들이 최초로 공개돼 주목을 끈다.

이번 전시는 7개 섹션을 통해 시대를 앞서간 독보적인 예술가 가우디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한다.



안토니 가우디(1852-1926년)

‘천재 혹은 광인’으로 평가받았던 건축학교 재학 시절 작품과 1878년 정식으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초기 작품들을 통해 건축가로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가우디를 만나볼 수 있다.

특별 섹션으로 가우디를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라 믿었던 ‘호안 미로’의 현정 작품을 선보이는 오마주 전시도 마련됐다.

를 만나볼 수 있다.

가우디의 전성기 작품에 해당하는 구엘 공원과 미완성으로 남은 숨은 걸작 콜로니아 구엘 성당에 관한 자료들도 전시된다. 이와 함께 카사 칼벳, 카사 바트요, 카사 밀라 등 그가 설계한 도시 주택의 모형과 스케치도 볼 수 있는데 가우디가 직접 그린 도면과 현재의 최종적인 외관을 비교해 보면 관람하는 재미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문과 문고리, 의자 등을 통해 디자이너 가우디의 모습을 살펴보는 섹션도 마련됐다. 형태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편안함까지도 갖춘 소품을 만날 수 있다.

1882년부터 건설되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건설 과정을 담은 희귀한 기록 사진과 모형, 도면, 스케치 자료도 소개된다. 바르셀로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기존 성당과 확연히 구분되는 독특한 형태와 장엄한 스케일, 혁신적인 구조, 섬세한 장식 등이 특징. 그는 생전에 완공하지 못할 것을 예상해 후세를 위해 수많은 모형과 스케치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 성당은 2026년, 가우디 사후 100주년을 기념해 완공될 예정이다.



구엘공원